

한 자녀 가정의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

강 은 주(울산대 석사과정)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많은 여성들은 “하나만 낳아 잘...” 키우고자 몸을 사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에 이르러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재진행형으로 다가오는 미래의 문제로 사회 부양인구의 증가, 노동력 감소, 생산성 저하, 연금 및 사회 보험 체계의 부담, 노인 돌봄의 문제, 의료비용 증대 등 사회문제의 등장을 예고하며 경제성장률의 둔화, 소득분배구조의 악화, 세대갈등을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재경 외, 2005).

이러한 저출산 현상의 지속에 따른 예상되는 어려움과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혼여성들의 향후 출산 계획,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식 등을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저출산 대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0세에서 7세 미만의 한 자녀를 둔 가정의 20세에서 40세 이하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을 통해 일반적 특성과 자녀돌봄과 관련된 변인, 둘째자녀 출산계획을 파악한 다음 둘째자녀 출산계획과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최종 분석으로 선택된 207부의 설문지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별로 경향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 및 평균값을 산출하였으며 둘째자녀 출산계획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이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7명의 조사대상자 중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대해 ‘예’는 68명(32.9%), ‘아니오’는 99명(47.8%), ‘아직 생각중이다’는 40명(19.3%)으로 ‘아니오’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아니오’를 선택한 이유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48명(23.2%))을 가장 높은 순으로 나타냈다.

둘째, 평일과 주말의 자녀돌봄 형태(가족이 돌본다/기타가족이 돌본다/전문 기관 및 시설이용/전문인력 활용)를 살펴본 결과, 평일과 주말 모두 ‘가족이 돌본다’에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가족이 돌본다’(본인/배우자) 중에서도 본인이 자녀돌봄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셋째, 첫 자녀의 연령($p<.01$)과 기혼여성의 학력($p<.05$)에 따라 둘째자녀 출산계획 여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출산지원시책 이용여부에 대한 응답은 ‘예’가 132명(63.8%)으로 ‘아니오’ 75명(36.2%)보다 많았으며 출산지원을 이용한 조사대상자 가운데 85명(41.1%)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출산 지원시책과 둘째자녀 출산계획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충분한 사회적 여건’과 둘째자녀 출산계획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저출산 대책은 ‘둘째자녀 공공 보육시설 무상 이용’(56명(27.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여성들에게 출산과 자녀돌봄의 부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양성평등한 가치가 확산될 있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또는 둘째자녀 공공 보육시설 무상 이용과 같은 저출산 대책 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사 지역을 범위를 넓히고 기혼남녀 비교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